철학 제133집 2017년 11월 http://dx.doi.org/10.18694/KJP.2017.11.133.129
CHEOLHAK, Korean Philosophical Association
Vol.133, Nov. 2017, 129-162

양자역학적 주체: 후썰 현상학적 주체와 칸트 비판철학적 주체 사이에서

-서구 형이상학 전통의 강화인가? 문제제기인가?-

이 유 숙*

【주제분류】 형이상학, 인식론, 현상학
【주요어】 주체이론, 형이상학 전통, 양자역학적 주체, 칸트, 후썰.
【요약문】 인식주체의 의미와 역할, 그것이 객체와 맺는 관계 등은 전통적으로 서구형이상학의 핵심 의제였다. 한편 객체결정론에 대한 양자역학적 문제제기와 그에 따른 양자역학의 혁신성 평가에 있어서 인식주체의 개념은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럼에도 정작 양자역학적 인식주체 해석과 전통형이상학 주체이론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과학철학, 철학일반 모두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이 논문은 그러한 문제의식의 발로에서 양자역학적 인식주체가 서구 근대 철학사를 통해 가장 영향력이 컸던 후썰과 칸트의 주체이론과 어떤 관련을 맺을 수 있는가 살펴보고, 그에 바탕해 양자역학적 인식주체론이 과연 서구형이상학 전통의 극복인지 아니면 강화인지 따져보며 양자역학에 대한 혁신성 평가를 재검토 한다.

1. 들어가며

양자역학은 특히 불확정성 원리와 연계하여 주로 '비결정론'이라는 의제로 그 철학적 함의가 널리 논의되어 왔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먼저 널리 통용되어 오던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의 철학적 해석에 있어 결정론 대 비결정론의 구도가 전제하고 초래하는 철학적 중심쟁점을 객체성(objectivity)의 의미 문제와 주체성(subjectivity)의 의미 문제라는 두 차원으로 정립하고, 결정론 대 비결정론 논의는 거의 전적으로 객체성에 대해 말해져 왔음을 분명히 할 것이다.

* 서울시립대학교 철학과 강사

그런 후에, 전통 서구형이상학의 주체성 이론의 관점에서 소위 양자역학적 주체 개념이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칸트와 후썰의 주체이론을 통해 점쳐 보고자 한다. 특별히 칸트와 후썰을 택한 이유는 그들이 의식적으로 당대 자기 전통 내에서 힘을 발휘하던 자연과학의 이론구조 전체를 '지식이 어떻게 가능한가?'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전통인식론의 질문을 화두로 하여 철학적으로 정당화 하고자 했고 그 궁극적 정당화의 근거이론을 주체이론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 프로젝트의 시작은 물론 칸트였고, 그것을 전투적으로, 전례없이 명시적으로 '주체성 프로젝트'로 환원시킨 이가 후썰이다.

이들의 주체성 이론 구도 속에 양자역학적 주체 개념을 가져다 놓으려는 필자의 의도는, 어쨌거나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고 있지 않는 듯한 양자역학의 소위 가치론적 측면에서의 '진보성' 또는 '혁신성 '을 재검토해 보고자 함이다. 주체이론을 굳이 거론하여 매개로 삼은 이유는 그러한 평가나 해석이 있게 된 이론적.역사적 배경에 어쨌든 주체—관찰자, 관측행위자, 혹은 관측기구 등등으로 구체화된—라는 용어와 개념이 명시적으로 기여를 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만일 그'진보성' 혹은'혁신성 '을 뒷받침해 주는 양자역학적 주체의 등장과 역할, 그에 대한 해석이 오히려 서구정통형이상학의 주체개념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면 어떠한가? 특별히 필자는 양자역학적 주체 개념을, 누구보다 서구정통형이상학의 계보를 요란하게 충실하게 잇고자 했던 후썰현상학적 주체 개념으로 번역해 보는 작업을 시도하며 이와 같은 질문을 던져 보고자 한다.

한편 동기와 뿌리는 같으나 후썰과 다른 결론에 도달했던 칸트의 주체에 관한 사유를 살피고 그것이 서구 전통형이상학의 관성 및 양자역학적 주체 해석과는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역시 함께 묻고자 한다. 필자는 양자역학적 주체가 서구 제도권 직업철학에서 더 오래 더 악착같이 다루어져 온 주체의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그 방향과 양태에 따라, 양자역학의 물리학적 평가를 넘어서는 혁신성, 또는 참신성 평가 역시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 일련의 작업을 맺음할 것이다.

2. 양자역학적 인식주체의 형이상학적 구태의연성

1) 양자역학적 인식주체 등장의 배경

고전역학이든 양자역학이든 '대상계'라고 말해지는 외부 세계를 대상의 동역학적 행위의 기술(記述)을 통해 표상하는 것을 공통의 동기와 목표로 삼을 때. 물리학적 사건이 전적으로 객체의 운동행위 사건으로 귀착되는 고전역학적 사건구조 하에서는 주체는 전적으로 사건과 행위의 동시 주체(agent)로서의 운동자, 즉 객체를 의미하게 된다. 이는 명시적으로 그렇다기 보다 구조적으로 그렇다. 즉, 고전역학의 경우 주체의 의미가 운동행위주체로 단일화되어 행위주체의 모든 역할이 순전히 객체에게로만 전이되니 구조적으로 인식주체는 등장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에 반해 양자역학의 서술구조는 관측사건과 운동사건의 종합으로 물리학적 사건의 의미를 재규정하고 행위주체 역시 관측행위 주체와 운동행위 주체라는 두 차원으로 나눈다. 이 때 운동행위주체인 객체와는 다른 행위자로서 관측행위주체가 주체의 다른 한 차원을 이루게 되면서 사건의 기술주체가 기술된 사건의 내용에 관여하지 않았던 고전역학에서와 달리, '객관적 세계가 어떠어떠하다'라는 판단을 산출함에 있어 인식주체의 행위가 그 판단 내용 자체에 "영향을 미친다(influence)"는 인식론적 사태를 맞이한다. 이로부터 세계를 객관적으로 안다는 것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식을 둘러싸고 양자역학적 비결정론 구도가 형성되고 이 때 비결정성은 전적으로 객관적.물리적 사태의 일의적 확인 또는 예측 가능성 여부를 가리키게 된다.

이 때 그 '인식주체의 개입'이라는 사태로 촉발되고 정당화되는 양자역학적 서술구조의 인식론적 비결정성은 그 자체로 무엇보다 객체, 또는 그 통합적 전체로서의 객관세계의 존재론적 결정성에 대한 입장표명 이라 할 수 있다. 즉 양자역학은 대상의 운동 상태를 기술함으로써 객관 세계를 표상하고자 할 때 더 이상 입자라는 이념(idea)에 천착하지 않겠다는 특정의 존재론적 입장을 이미 표방하고 있으며, 이는 입자성이라는 이념을 전제적으로 가지는 것이 타당한가 아닌가에 대해 묻지 않고도 표상을 진행하려 하고 또 그럴 수 있다는 구조적 선언이라 하겠다. 이것은 곧 위치와 운동량이라는 입자대상의 있음의 양

상을 나타내는 지표로 고전적으로 확실했던 이념과 그러한 물리량들의 일의적 측정(예측)가능성과 당위에 관한 이상(ideal)을 포기하거나, 제한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또는 굳이 그와 같은 당위를 전제하지 않겠다—전제 할 수 없다—는 이론적 입장표명과도 같다.[1] 그리고 그러한 입장이 어떤 주어진 시공간 상황에서 대상의 있음의 양상에 대해 어떠한 "교란"(disturbance)도 없는 정확한(일의적인) 판단(예측)을 내놓을 수는 없다는 인식론적 비결정성과 상통한다. 이때 그러한 비결정론적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상황조건으로서 그 "교란"의 구체적 양태가 바로 각종 물리적 장치와 행위의 복합체로서의 '관측'이라는 사태가 되고 인식주체는 그 관측사태에 연루된 "관측자 주체(observer subject)"로 등장한다. 그리고 여기서 주체는 객체성 논쟁의 요소이자 궁극적으로 힘—영향력—의 행사자로서의 주체를 가리킨다. 이것이 바로 주체개념이 양자역학적 앎의 조건의 중심축을 형성하게 된 이론적.현실적 계기이다.

2) 양자역학의 실재론 논쟁에 연루된 인식주체의 의미와 기능: 하이젠베르그와 보어에게 있어 주체개념

이러한 의미의 인식주체 개념은 양자역학에 대한 철학적 해석 논쟁을 본격적으로 이끌고 가장 활발히 가장 장기적으로 이어지게 한 결정적 계기인 코펜하겐 해석의 주요 두 기둥인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uncertainty) 원리와 보어의 상보성(complementarity) 개념 이해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잘 알려졌다시피, 코펜하겐 해석 중심의 양자역학의 철학적 해석의 다른 이름은 "실재론"(realism)논쟁이다. 따라서 우리는 양자역학적 주체라는 말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맥락에서 쓰이는지를 보기 위해 반드시 그리고 불가피하게 이 실재론 논쟁을 들여다 볼 수 밖에 없다.

실재론 논쟁의 핵심은 자연과학적 지식의 대상인 객관세계를 그 지식의 타당성을 판가름하는 최종근거로서 인지정신(mind)과 독립해서 존재하는 실체로 보아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이다. 물리학적 맥락에서 그 세계란 동역학적으로 기술된 상태를 점유하고 있는 객체대상의 총체로서의 자연을 의미하므로

1) 양자역학을 이러한 이념적 차원에서의 거리두기로 보고자 하는 입장과 관련해, Feynman의 정리는 매우 명쾌하다. Feynman (1963), pp. 2-8~9.

이는 그 구성 대상, 즉 동역학적 기술 대상의 개별적 존재론적 실체성에 대한 논쟁이라 해도 무방하다. 실재론의 입장은 단순히 대상의 존재자적 실체성에 대한 것이냐, 그러한 실체성이 이론을 통해 이론 안에서 '그대로' 표상된다고 믿어야 하는 당위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냐, 그 존재성이 특정 표상그림, 가령 시공간성과 인과성이 동시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림으로 확인 가능한 것을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 이름이 다르게 붙여지는 세부 갈래들이 존재하지만,[2] 여전히 그 모두의 핵심은 어쨌거나 객체(세계)에 관한 기술체계—물리학 이론—와 객체 자체의 독립성에 관한 문제의 재구성이다.

양자역학 실재론 논쟁은 일반적으로 자연을 기술하는 고전적 관점이 "인지자에 대해 독립적인 세계"(a knower independent world)와 인지내용—객체의 동역학적 상태 기술 내용—이 직접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을 무비판적으로 전제해 왔다고 지적한다. 이것은 세계에 대한 객관적 지식을 얻고자 할 때, 고전역학적 관점은 고전적 개념들—범주적으로 반드시 시공간적으로 표출되는 인과성, 구체적으로 속도, 위치, 에너지 등과 같은 고전역학의 서술 변수들—로 표상된 자연이 자연 그 자체와 일대일 대응관계에 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고전적 관점을 따를 경우 물리학 명제들은 세계에 관한 정보를 담음에 있어 일체의 유실이나 결핍 또는 불확실성이 없이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충족성을 대변하게 된다. 즉, 이는 현상세계에 접근하는 데 있어 고전역학적 표상자—물리학자 자신—는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는다는 뜻인데, 이를 달리 표현하면, 표상(representation)—동역학적 기술(description)—사건이 현상실제성(phenomenal reality)를 있는 그대로 옮기는데 전혀 관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실험실 상황에서 이 기술사건은 측정사건으로 실행되고 위의 고전 개념들은 특정의 값을 지닌 물리량으로 체현된다. 이로써 고전역학적 세계표상구조는 자연대상의 실체적 독립성과 정보적 연속성・비매개성이 고전적 개념들의 물리량 값으로 측정되는 사건을 통해 경험적으로 완전하게 가시화되는 양태로 입증되는 구조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것으로 동역학적 미래 사태의 확실

2) 실재론의 입장정리에 관한 문헌은 도처에 편재하나, 양자역학적 인식주체의 역할과 개념을 파악하는데 더 도움이 될 만한 정리로는, Folse. "Bohr's Framework of Complementarity and Realism Debate," in Faye & Folse (1994); pp. 119-139 를 추천하며 필자 역시 그의 정리를 주로 참조했다.

하고 일의적인 예측가능성을 의미하는 고전역학적 결정론의 근거가 마련된다.

이제 양자역학적 실재론 논쟁은 위와 같은 고전역학적 인식론적 확실성과 충족적 가시성(可視性)에 대한 문제제기로 측정사건이 자연에 대한 기술에 관계를 하는가, 한다면 어떤 종류와 양태의 관계인가라는 질문의 형식으로 표출된다. 바로 이 지점이 주체라는 용어가 다양한 표현적 변용으로 등장하고 역할을 하는 지점이다. 물리학적 맥락에서는 관측자(observer) 또는 물리학자(physicists)로 불리기도 하고 보다 일반적인 철학적 맥락에서는 인지자(knower) 또는 인지정신(mind)로 지칭되기도 하지만, 이들은 하이젠베르그나 보어와 같은 물리학자들의 언설에서 명시적으로 "주체" 또는 "인식 주체"(knowing subject)라는 용어로 통칭되고 있다.[3] 이 논문에서 양자역학적 인식주체라 이름 붙인 개념 대상은 이와 같이 양자역학 실재론 논쟁 과정에서 물리학자들 자신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거론되고 그에 대한 철학적 분석과 해석에서 재론되고 있는 바로 그 '주체'를 가리킨다.

이렇듯 실재론 논쟁에서 핵심 기능을 하고 있는 양자역학적 주체는 다음의 두 가지 판단을 필수적으로 수반한다. 첫째, 인식가능하다는 것은 측정가능하다는 판단과, 둘째, "세계가 실제로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존재한다(what the world of objects really is)"라는 사태에 관측자주체가 어떤 정도로든 분명히 관여한다는 판단이다. 그리하여 '대상세계의 어떠어떠함'이라는 사태에 대해 언명적 주장을 할 수 있기 위해 대상이 측정이라는 사건에 휘말리는 것이 이제는 필연이 된다. 그러한 필연적 매개성으로부터 대상에 대한 인식내용은 사뭇 대상의 실체.상태적 '본질'을 담는데 있어 완전하지 못한 것이거나, 객관적 세계는 그 자체가 인식주체에게 항상 이미 어떤 정도 이상의 인식론적 제약 안에서만 표상되는 존재론적 특성을 구조적으로 가지는 그런 세계라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그 경우 그런 방식으로 주어지는 세계에 관한 지식이 바로 '세계가 실제로 그러그러하다' 라는 말의 참의미가 된다. 다시 말해 인식주체의 인식내용의 불완전성과 객관세계 자체의 일종의 구조적 "불합리성

3) 하이젠베르그의 경우 불확정성 원리의 설명과 해석 전반에 걸쳐 주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Heisenberg,1958) 보어의 경우 특별히 실재론 논쟁 연구의 중심 분석대상인 그의 유명한 *Nature*지 논문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Bohr, 1928)

(absurdity)"은 의미론적으로 등가화 되며 확률(파)개념 자체가 인식주체의 계산범위를 일정정도 항상 벗어나 있으려는 일종의 존재적 "경향성(tendency)"으로서 특이한 "중도 형태의 물리적 실재(성)(a strange kind of physical reality just in the middle between possibility and reality)"으로 해석되는 것이다.[4] 이것이 주체-객체 관계에 대한 다분히 하이젠베르그식 설화의 개요라 하겠다.

하지만 주체가 세계와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한 이와 같은 구조주의적 입장은 보어자신의 상보성 개념 해석에서는 더 강하게 드러난다. 보어는 한 대상의 현상적 최종성을 기술하는 데 개념.형식적으로 서로 배타적인 두 표상그림—입자와 파동—이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그래야 한다는 상보성 원리를 통해 객관세계의 "실재성"(reality)은 현상이 측정을 통해 그러그러하게 드러나는 "현상실제성"(phenomenal reality)을 의미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그러한 현상실제성의 기술적(descriptive) 완성은 바로 "객체와 측정매체 와의 상호작용(interaction between object and measuring agencies)"[5]의해 결정되며 이 때 측정장치, 상황에 대해 객체 자신이 보이는 반응을 완벽히 통제하는 것—어떠한 정보유실이나 불연속성 없이 다 아는 것(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한다. 이것은 곧 시공간적으로 확실하게 구현되는 인과성-어떤 인과적 상태효과의 특정 시공간 지점에서의 온전히 충족적인 확인-이라는 고전적 개념을 포기하거나 부인해야 함을 함축한다, 보어는 전자가 특정의 위치를 가지는 입자이면서 동시에 에너지흐름 자체이기도 한 사태를 고전적 개념을 그대로 사용해서 이해해야 하는 어려움을 "양자가설(quantum postulate)을 특징짓고 있는 (내재적)비합리성(irrationality)"[6]이라 표현하는데, 미래에 대

4) Heisenberg(1958), p.42. 모든 인용구절의 국문 번역은 필자 자신의 번역이다. 한편 필자는 "reality"가 '실체존재성'의 의미로서보다 "ideality"와 대비되어 '경험적・현상적 실제 그러그러함'의 의미로 주로 쓰이며, 경험자 세계(*physis*)의 속성을 가리키는 말로 정착해왔던—특히 후썰현상학을 통해—서구 근대 형이상학 언어전통을 고려하여 이 논문에서는 "실재(實在)"와 "실제(實際)"로 맥락에 따라 적절히 병행해 번역해 쓰고자 한다. 다만 "realism"은 양자역학과 관련해서는 워낙 보편적으로 "실재론"이라 번역되어 왔고 그 의미 또한 객관세계의 독립존재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특화되어 왔기에, 기존의 철학적 논쟁을 다루는 맥락에서는 "실재론"을 그대로 쓰기로 하겠다. 그러나 그 외 필자 자신의 논지가 중심이 되는 곳에서는 "실제주의" 등으로 독자 번역할 것임을 밝혀둔다.

5) Bohr(1935), p.697.

6) Boh r(1928), p. 590

한 정확한 예측가능성의 불가능성과 개념과 현상의 대응양상의 불연속성을 동시에 가리키는 이 "비합리성"은 그 자체로 "측정이라는 이념(idea)에 내재한 본질적 주관성(subjective character)"[7]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주관성의 의미는 세계에 관한 지식의 속성이 주관주의적(subjectivistic)으로 결정된다는 심리적 주관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 반대로 인지과정 자체, 즉 주체-객체 관계의 구조자체, 객체가 주체에게 현상으로서 자신을 드러내는 양식 자체에 구조적으로 내재(inherent)한 속성으로서의 주관성을 의미한다. 즉 이 비합리성이 초래하는 "한계"(limit)는 바로 "자연 자체가 우리에게 부과하고 있는 것(nature herself has thus imposed upon us)"이다.[8] 상보성은 자연세계자체가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의 그러한 구조적 비합리성에 상응하여 인식주관(our mind)에 "본질적"으로 탑재된 표상 지침이다. 즉 자연은 측정사태에 매개되어 인식주체가 그 존재양태를 범주적으로 서로 배타적인 두 개념을 가지고 상보적으로 기술할 수 밖에 없는 방식으로 자신을 보여준다.[9]

결론적으로 하이젠베르그가 파동방정식을 '자연세계'의 수학적 구조 자체를 표상해 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나[10] 보어가 물리적 실재(physical reality)를 측정장치.행위와의 상호작용에 "본질적으로"(essentially)[11] 의존하는 실험적.매개적 표상성으로 정립한 것은 무엇보다 관측사건과의 상호작용과 구조적인 의존관계에 있는 대상(세계)에 대한 존재론적 입장이다. 즉, 인식주체의 객체에 대한 인식론적 한계, 인지구조의 한계가 종국에는 대상세계의 존재론적 본질 자체로 귀착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불확정성 원리와 상보성 원리는 어떤 정도와 양태로든 객체성(objectivity)의 존재론적 안보를 고전역학과 다른 관점에서, 즉 양자역학적 방식으로 책임(commitment)지고자 하는 강한 고전적 의지를 여전히 담고 있다. 양자역학 해석을 명실공히 지배해 왔던 코펜하겐 해석은 사실상 자연자체는 측정장치라는 인식장치 매개를 통하지

7) Faye (1991), p. 61의 보어 인용문 중에서 재인용함.

8) Faye (1991), p. 169의 보어 인용문 중에서 재인용함; Folse (1994), in Faye & Folse (1994), p. 123

9) C. Chevalley, "Niels Bohr's Words and the Atlantis of Kantianism," in Faye & Folse (1994), pp. 40-41.

10) Heisenberg (1958), chap.3

11) 보어 독자들은 그의 글에서 얼마나 빈번히 이 "본질적"이라는 말이 등장하는지 쉽게 알아챌 수 있다. 흡사 (구조적)본질성은 보어 사유에 있어 본질적인 듯하다.

않고는 알 길이 없는 그 자체로는 불가지적 존재이거나, 혹은 그 자체적 존재성 여부에 상관없이 항상 인식주체와는 측정을 통해 불확정성 원리와 상보성 원리로만 소통하는 모습과 방식으로서 '있는' 세계라는 객관세계의 "실재(제)성"과 객체성의 의미에 관한 재천명이다.

3) 양자역학적 인식주체 이론의 부재

양자역학의 이론적 진화의 역사를 살펴 볼 때, 특히 이론적으로 핵심적인 전환점을 이루는 1910년대 초.중반부터 1930년대까지, 양자역학의 물리학적 내용은 그에 대한 철학적 해석과 독립적인 자리에서 생산되고 있지 않다. 유독 양자역학의 경우 물리학 내부에서 물리학 이론 생산의 핵심을 담당하던 '내부자들' 사이에서 그들이 주축이 되어 의식적으로 그 이론생산물의 '철학적 함의'를 바로바로 논의하거나 논쟁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물리학 체계 완성의 부분으로 받아들여 왔다는 것은 과학혁명이후 근대자연과학이 방법론적으로 내용적으로 워낙 전문화 되고 방대해 지면서 전통적 철학과 분리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현실을 감안할 때, 20세기 양자역학에 특이한 현상이라 할 만하다.[12)]

반면 양자역학적 실재성 논쟁이 근거하고 있는 주체나 객체, 앎, 인식론, 형이상학등과 같은 철학적 용어와 개념에 대한 물리학자들과 양자역학 해석자들의 이해는 매우 특수하게 편향되어 있다. 실재론 논쟁에서 거의 일괄적으로 보이는 형이상학에 대한 물리학자들과 과학철학자들의 이해는 이들이 형이상학을 인식론과 대립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들의 언설에는 '인식주관(cognitive mind)에 독립적인 '물적 실체(things, entity)가 절대적으로 외재(外在)하는가'라는 질문을 전통 형이상학의 핵심 문제로 보고, 데카르트의 'sum'의 세계가 바로 그 독자적 절대외재성을 보여주는 세계이며 고전물리학의 서술개념과 구조가 그와 같은 데카르트식 객체세계에 관한 실체존재성의 안전성을 보장하려 한다고 파악하는 아주 일관된 형이상학 읽기의 기조가 있다. 앎의 주체의 개입을 끊임없이 거론하는 실재론 논쟁이 결국 항상 '객관적

12) 그러한 철학적 논쟁의 구체적 지면이 *Physical Review*나 *Nature*와 같은 정통 물리학 잡지였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으로 실재한다'라는 판단의 의미, 즉 객체성의 의미를 양자역학적으로 재정립하려는 시도로 환원되고 말았던 데는 형이상학 전통과 관점에 대한 바로 그와 같은 단선적 이해와 반발이 작용하고 있다.[13)]

다시 말하자면 언뜻 '새로운' 인식주체 이론을 제시하는 듯한 양자역학의 실재론 논쟁에서 주체이론은 사실상 부재하며, 그것은 '객관세계'의 실제 존재성 여부에 관해 다른 방식의 질의하기를 시도하는 것과 다름 없었다. 객체 상태에 대한 측정작용의 본질적 개입 또는 영향이 거론될 때마다 예외 없이 함께 등장하는 주체는 객체-측정간 상호작용의 주체로서 언뜻 그 상호작용의 제약을 함께 받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하지만, 사실상 그 상호작용 효과의 무게중심은 전적으로 객체성의 의미문제에 놓여 있다. 즉 객체-주체간 명확한 구분과 객체-측정 상호작용의 고전적 무시에 대한 양자역학적 반발의 핵심은 표상행위와 무관한, 그것에 의존하지 않는 객체표상이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으로, 주체가 필요해지는 맥락은 언제나 객체성의 의미경계의 재설정이다. 즉 양자역학의 주체성이란 곧 객체의 측정 기제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본질적·구조적 의존성과 같으며 '객체에 가해지는 인과작용의 일체를 항상 연속적으로 시공간적으로 동시적으로 가시화할 수는 없음' 자체를 객관성의 새로운 의미기준이 되게 하는 규범이다. 상보성은 객관세계의 구조적·본질적 비합리성을 가장 적확하게 대변하는 새로운 합리성의 토대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것이다.[14)]

4) 서구 형이상학 전통과 양자역학적 주체

양자역학적 실재론 논쟁 과정에서 이해되고 있는 것과 달리 필자가 보기에 서구 형이상학 작업 전통의 더 중요한 핵심은 지식의 최종적 정당화를 아는 행위의 보편본질로 전제하고 그 근거로서 어떤 형태로든 존재론적·인식론적

13) 이러한 경향은 여지껏 참조한 하이젠베르그와 보어의 문헌들에서 두루두루 발견되며, Faye (1991)와 Faye & Folse (1994) 수록된 다수의 연구자들의 글들을 통해 확인된다, 특히 H. Folse, "Bohr's Framework of Complementarity and the Realism Debate" in Faye & Folse (1994), pp. 119-139를 참조할 것.

14) Chevalley, "Niels Bohr's Words," in Faye & Folse (1994), pp. 35-43; Faye (1991), chap.VI.

절대기준자리를 요구하고 바로 그 구조적 요구 때문에 객관—바깥—세계의 실체존재성에 관한 판단의 확실성을 문제 삼아 왔던 관행이다. 인식론적 절대 정당화의 근거로서 절대의 존재론적 자리를 필연적으로 요구하던 것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 이어 기독교 신학은 물론, 소위 서구 근대성의 시초로 알려진 데카르트, 스피노자를 거쳐 칸트와 독일관념론을 비롯해 20세기 서양철학의 '진정한 혁명군'을 자처하는 현상학적 사유에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그야말로 '서구식 사유의 정통이자 습관'이다. 이 습관이 데카르트에게 이르러 구체적으로 "표상의 문제(problem of representation) "로 쟁점화 되면서 서구형이상학이 소위 근대를 맞이한다, 지금은 마치 상식처럼 통하는 '근대의 시작=데카르트적 주체의 등장'이라는 서구근대비판 도식의 발생론적 기원은 사실상 이 표상의 문제, 즉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객관세계에 관한 표상이 객관세계의 실제 그러함을 보장해 준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라는 객관적 실제성(objective reality)과 인지적 표상(representations in mind) 간의 대응관계 문제에 답해야 한다는 그 오랜 형이상학적 동기였다. 말하자면 "*cogito*, *sum*"은 다름 아닌 인식성—사유성—이 '나'의 존재성을 증거하는 순간 세계의 존재성의 확실함을 되돌려 받는 구조를 통해 표상의 문제를 해결하려던 형식기작이었다.

이러한 서구형이상학 전통에서 봤을 때, 실재론 논쟁이 주도하는 양자역학적 주체-객체 관계 해석은 측정작용으로 현전하는 인식주체의 출연이 자연이라 불리는 객관세계의 '본질'을 기술하는데 이제 불가피해졌다는 것 말고 주체자체에 대해서 특별히 새롭거나 괄목할 만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즉, 양자역학적 인식주체의 물리학적 정체성은 인식 자체와 동일시되는 측정을 통해 '영향을 주는' 측정주체이며, 그러한 관측주체의 철학적 정체성은 전통적으로 서구 형이상학이 주창했던 이성주체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양자역학이 제기하는, 소위 양자역학적 '새로움'으로부터 이제는 말해지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주체(관측)의 개입과 물리적 실재와의 상관성 주장이 하고 있는 문제제기는 결국, 여전히, 객관세계의 주관적 표상경험과 세계자체의 객관성의 대응정도 양식, 그리고 그것의 앎의 가능성에 관한 데카르트의 문제제기를 재탕하거나 그것으로 돌아간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문제제기라는 측면에서는 회귀했으면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존재론적 절대

주체성'을 아예 대놓고 기저로 삼는 데카르트적 해답에 대해서는 현대물리학이라는 분야 특성상 구조적으로 무지 또는 무심하여, 인식주체에 관한 철학적 사유 자체만 두고 보면 오히려 문제제기 이전 상태, 즉, 인식과정의 확고한 정당화 지점은 문제 삼았으나 그것이 딱히 인식주체의 확고한 존재론적 자리와 동일시되어야 한다는 의식으로는 표출되지 못했던 데카르트 이전 상태를 답보하고 있다. 정확히 바로 이런 맥락에서 필자는 인식주체에 대한 양자역학적 논의가 많은 해석자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고전역학이 대변하고 있다고 단정하는 형이상학 전통과의 단절이나 극복 보다는 인식근거의 절대정당화에 천착하는 서구 형이상학 전통을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정당화의 근원이자 완결지점을 "주체"로 결의하는 "서구 근대형이상학 사유전통"을 훨씬 더 공고히 해 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서구 형이상학 전통에서 막강한 이론적 역할을 담당해 온 주체개념의 핵심은 인식론이 아닌 존재론이며 동시에 그 주체존재론의 핵심동기가 곧 인식론적 절대 정당화—표상의 문제해결을 통해 객관세계에 관한 지식의 절대정초문제를 끝장내려는—였다. 즉 서구 전통 형이상학에서 존재론과 인식론은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는 지향과 동기라는 한 동전의 양면이다. 즉 주체의 절대존재론적 지위와 사유성의 규범성이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형이상학적 주체이론의 궁극적 목적이 객체세계에 대한 절대 확실한 인식론적 안보 보장이라 할 때 이는 상대론을 비롯해 양자역학의 철학적 해석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바와 투명하게 일치한다. 왜냐하면 반복하건대 불확정정이나 상보성 개념이 선언하고 있는 "관측기제에 대해 독립적인 원자적 대상의 행위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가능성에 가해진 절대 제한(an absolute limit to the possibility of speaking of a behavior of atomic objects which is independent of the means of observation)"[15]은 객체성의 의미를 정초하는 인식주체의 절대규범성에 대한 제한이 아닌 표상적 한계를 새롭게 규범성으로 가지는 더 진일보한 정초기제를 특화하기 때문이다.[16] 다시 말해 인식(주체)행위가 측정행위로 환원되고, 측정행위가 객체성에 대한 판단내용과 자신감 결정의 주요 지표로 환원되는

15) Faye (1991), p. 170의 보어 인용문에서 재인용함.

16) Chevalley, "Niels Bohr's Words," in Faye & Folse (1994), p. 36.

양자역학적 논의구도에서 지식의 *정당화*에 선험적 책임과 의지적 자유도를 갖는 이성인식주체의 존재론적 자리를 설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최소한 그런 당위의식에 구조적으로 쫓기는- 전통서구형이상학-특히 데카르트 이후-의 인식론적 정초관성은 흔들림 없이 작용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형이상학적 절대이성인식주체의 규범적.존재론적 속성 역시 하등의 문제나 의문 없이 그대로 작동할 수 있다.[17]

17) 한편 필자가 최근에 우연히 알게 된 "서울해석" 역시 그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 보이지 않는다. 상당한 내용적 풍성함을 가지고 "서울해석"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는 비교적 간명하게 양자역학의 인식론적.가치론적 정당화이다. 이 해석은 양자역학에 "인간이 세계를 합리적으로 이해하는데 있어 기댈 수 있는 가장 신뢰할 만한 보편통로"라는 상식적으로 통용되던 지위를 애초에 인정하는 가운데 그동안 양자역학의 철학적 담론을 지배해 왔던 코펜하겐 해석 중심의 실재성 논쟁이 양자역학의 이론적 성과를 "실재성에 관한 전통적인 주장"에 맞춰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그 이면에 "측정"을 인식행위 차원이 아닌"물리적 작용 "으로만 바라보는 관점이 작용함을 비판한다. 그러나 이는 그 작용이 세계성의 본질로 간주되고 있는 측면에서는 맞는 지적이지만, 그와 동시에 인지과정의 구조적 특성으로도 선언되기에 코펜하겐 해석에서도 역시 측정이 인식행위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어쨌거나 이 해석은 이를 인식주체의 의미에 대한 이해의 한계로 보고 측정행위와 측정장치 또한 인식행위와 주체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실재성, 나아가 앎의 의미자체를 양자역학적 상황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재정립하려는 이론적 포부를 피력하고 있다.
결국 이 해석 역시, 분명하게 정리하지 않으면서 "전통형이상학적 관점"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그 때 그것은 여전히 "표상에 대응하는 확고한 대상(세계)의 실체존재"를 긍정하는 입장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그것의 극복을 위한 이론적 열쇠로 제시한 "측정의 인식과정으로의 통합"은, 물리적 상호작용성을 강조하건, 인식적 행위성을 강조하건, 측정사건과 객체상태 간의 영향관계를 통해 실재성 의미를 파악하려는 관점과 시도라는 점에서 전통형이상학 작업의 전형인 "표상의 문제 해결"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실재성의 단위지점을 설정하는데 기존해석들보다 융통성을 부여하고 측정을 절차적 실체로 실재성 구성에 참여하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 또한, '실재성사유의 전통'에서 태어난 형이상학적 '나', 과학적 합리성을 확신하고 그것의 보편타당한 준거지위를 받아들이고 그런 능력과 신념을 당위와 규범으로 삼는 정당화 근원주체인 '나'의 절대의미와 절대 자리는 전혀 건드리지 않는다. 이는 인식주체를 인간만으로 볼 것이냐, 측정기구와 같은 비인간 존재자들도 포함시킬 것인가와 같은 인식주체의 존재론적 경계 설정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와 무관하다. '전통주체인식론'에 특별히 인간성 의미가 부각되었던 것은 코기토(cogito)의 이상적 의미내용(ideal meaning content)이 이성성으로 환원되고 그 명확한 존재론적 자리가 사유성 만으로 순화된 '인간 나(I)' 로 정해지면서 발생한 것일 뿐이다. 이런 서구형이상학적 사유전통 속에서 비인간을 인식주체의 범주로 끌어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그와 같은 인식주체성의 의미를 인간외적 존재 또는 상황에까지 확장적용가능한가 아닌가의 문제일 뿐, 인간성 의미수립에 있어서 서구 언어구조와 이성인식능력을 모든 정당성 비판의 보편규준으로 삼아온 서구철학전통에 대한 성찰과는 무관하다. 인식주체의 존재론적 외연확장에 대한 문제제기는 오히려 인식에 있어서 이성주체성의 '절대보편규준성'을 더욱 확장・강화시킬 수 있다. 이런 제반 측면에서 서울해석 역시 규범적 이성성을 핵

3. 칸트식 인식주체-자기딜레마적 不可知者(the agnostic)

서구 철학사—특히 데카르트 이후—를 통해 인식주체란 다름 아닌 인식론적 정당화의 주체로서, 이성적 인식을 더 이상의 근거를 요구받지 않는 선에서 정당화 되는 앎으로 이해하는 서구인식주체가 객관적 세계를 안다는 것의 의미를 고민하고 비판적으로 재검토 한다는 것은 곧바로 그와 같은 형이상학적 고민의 주체로서 인식주체 자신의 의미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관한 문제로 귀착되었다. 그리고 정확히 그것이 칸트의 첫 작업이었다.

칸트 역시 예외 없이 전통적 주제이자 풀리지 않는 난제로 여겨지던 "표상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동기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칸트는 형식론적으로 "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질문을 보전하고, 의미론적으로 "경험세계에 관한 자연과학적 지식은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물으며 앎의 대상으로서의 객체의 의미를 재설정한다. 이제 칸트식 의미로 '안다'는 것은 인식주체가 자기 앞에 대결적으로 서 있는 것으로서의 객체를 "경험"하는 것으로 결정되고, 표상의 문제의 해결은 이"주체가 객체를 경험한다 "는 것의 의미를 정확히 하고 정당화 하는데 달려있게 되었다.

칸트는 표상의 문제가 풀리지 않았던 이유가 객관적 세계의 객체성을 존재적 실체성으로 보고, 거기-밖 어디에 이미 주어진 것으로서의 세계에 인식주관이 어떻게, 어느 만큼 닿았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를 헤아리다 보니 표상의 확실성과 충족성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회의론의 공격에 시달릴 수 밖에 없었다고 진단한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칸트식 처방이 바로 인식주관과 객체의 위치에 있어서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통한 인식구조의 개편이었다. 칸트는 불변.부동의 준거자리로서의 거기-밖이 표상의 근원지점이 아닌 파생지점이고, 대신 인지정신(mind)이 그 중심점이라면 더 이상 객체성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인식론적 악순환은 기능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18]

으로 하는 '정당화하는 (인간)주체성'의 본질에 집착했던 다른 한 면의 더 강한 서구전통을 되풀이하고 있지는 않나 싶다. (장회익 외 (2016), pp. 115-122)

18) Kant (1965), pp. 152-155; B131-6. 이하 칸트 『순이성비판』표기는 표준방식에 따른 A/B 쪽매김을 병기한다.

칸트의 이분법은 그와 같은 구조적 혁명이 기능하기 위한 필수 장치였다. 지각(sensibility)과 이해(understanding), 직관(intuition)과 지성(intellect), 경험가능자(phenomenon)와 경험불가능자(noumenon)의 엄격한 구분을 전제로 이제 안다고 하는 것은 현상세계에 국한해서만 의미를 가지게 되었고, 객체성 자체가 지각행위와 인지행위의 주관적 종합을 통해 결정되는 구성의 산물이 되었다. 객관 세계의 경험에 '나'라는 인식주관의 선험적 구조가 벌써 투사해 있게 됨에 따라 인식주관구조와 무관하거나 거기에 독립적인 객체존재나 상태를, 최소한 자연과학 인식론의 영역에서 말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여기까지가 대중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칸트 이해이다. 논란과 비판 속에서도 오래도록 이러한 이해가 마치 칸트철학의 '근본'처럼 보이도록 한 데에는 칸트 형이상학의 통합적 체제의 의미를 전적으로 인식론적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하고자 했던, 19세기 말 20세기 초를 통해 유럽철학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신칸트주의 운동의 역할이 크다. 양자역학적 실재성 논쟁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칸트는 바로 칸트 자신이라기 보다는 이러한 신칸트주의로 옷을 갈아입은 칸트라고 봐야 할 것이다. 특히 칸트에게서 존재론적 논점과 그 함의를 제거하고 칸트 비판철학의 핵심의의가 객체성의 의미를 규정하는데 인지관념(ideas), 즉 이해의 형식으로서의 범주와 원리의 적용이 절대 선결조건임을 밝힌 것이라고 정리하는 Cohen, Natrop, Cassirer 가 주축이 된 Marburg 학파의 신칸트주의 관점은 20세기 현상학과 과학철학 논의에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19] 즉 그들은 자연과학 지식의 정당화는 그 인식구조의 정당화에 있고 자연과학적 인식구조는 바로 시공간성을 초월해 작용하는 논리형식성의 불변하는 보편법칙성에 있다고 바라보는 관점을 공유하는데, 이것이 설파하는 바는 현상으로 경험되는 모든 객체성은 사유의 선험적・구조적 논리형식성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칸트의 이분법은 사실상 무의미해지며 알 수 없는 '물자체'니 직관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감각자료와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은 심지어 칸트철학의 진정한 이해를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모든 객체경험은 인지구조형식의 체화이며 객체성은 자연과학적 인식구조—수

19) 신칸트주의에 대한 전반적 이론적 고찰과 20세기 유럽철학 및 과학철학, 과학사에 끼친 그것의 영향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로 Makkreel & Luft (2010)은 꽤 괜찮은 지침서이다.

학적・논리적 법칙기능구조—에 대한 근본적 의존성에 다름 아니다.[20] 20세기 초 물리학자나 과학철학자들 사이에서, 특히 양자역학의 실재론 논쟁과 관련해 등장하는 칸트는 이러한 Marburg학파의 관점으로 재형성되고 재조명된 칸트다. 이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예로 보어가 칸트를 취하는 방식을 들 수 있다. 거의 모든 보어의 철학적 지식과 입장은 결정적으로 학창시절 그의 스승이었던 Harald Høffding의 철학 수업들을 들으며 형성되고 그 이후 평생 그와 주고 받았던 서신과 소통을 통해 다듬어진 것임은 자세히 밝혀져 있는데,[21] 바로 Høffding의 철학적 견해자체가 신칸트주의의 목소리로 전해진다. Høffding은 쿤(Kuhn)의 과학사관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쳤던 프랑스 신칸트주의 계열의 Meyerson과 평생 지적교류 하며 그와의 서신에 자신의 입장과 합치하는 보어의 철학적 입장을 자주 언급하고 있다.[22] 즉 철학의 진정한 문제는 인식론적 언어로 정립되어야 한다고 보고 칸트의 불가지론을 존재론에 천착한 오류로 파악하는 대신 객체경험에 있어 주체의 인식론적 개입의 절대정당성에 초점을 두는 관점은 모두 칸트와는 심지어 '무관'하다고 까지 볼 수 있는 신칸트주의적 칸트라 하겠다.

하지만 막상 칸트의 코페르니쿠스적 기준자리 전환은 형이상학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이었다. 즉, 칸트 체제는 객체경험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의 규명(정당화)을 문제의 핵심으로 규정하면서 앎의 의미는 '객체가 객체로서 *존재한다*'는 것의 의미규정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라는 존재론적 메시지를 동시에 중요하게 전하고 있다. 칸트의 객체를 이해하는 이분법적・도식적 주관적 인식론은 객체는 주체의 인식행위 작용으로부터 실존적으로 독립할 수 없는, 주관적 인식에 대해 상대적으로 구성된 존재임을 천명하는 그 자체로 객체에 대한 비판적 존재론(critical ontology)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객체가 객체로서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을 '합리적으로' 규명하려는 체제는 불가피하게, 그 조건의 선험적 담지자이자 동시에 후험적 규명자로

20) Kühn, "Interpreting Kant correctly:On the Kant of the Neo-Kantians," in Makkreel & Luft (2010), pp.113-131. 여기서 Kühn는 이러한 인식론적 이념주의(idealsim)를 첨예한 철학적 입장차이를 희석시키며 독일, 프랑스 신칸트주의 모두를 아우르는 공통분모로 분석하고 있다.

21) Faye (1991)의 책은 Bohr-Høffding 관계에 관한 가장 세밀한 과학사적 연구이다.

22) Faye (1991), Part I.

서의 주체의 의미—주체가 주체로서 존재한다는 것의 의미—역시 비판적으로 묻지 않을 수 없게 했다. 하지만 이 구조는 애초에 현상적인 것과 현상적이지 않은 것을 나누어 후자에 대해 앎을 논하는 것을 영구적으로 유보하고 모든 아는 행위를 '나'에 의한 객체화(objectification) 작용으로 정했기에, 그 앎의 결정주체인 '나'를 아는 행위마저 종국에는 객체경험의 궤도 안으로 떨어뜨리고 만다. 즉, 객체성 의미의 절대 정당화 근간으로서의 주체성의 의미를 수립하고자 할 때, 그 주체성 역시 객체화 과정을 겪어야만 하는 딜레마적 상황을 초래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는 준거로서의 자기동일성과 통일성을 선험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주체가 이미 의미 내재적으로 객체경험으로 "결정된 주체(determined subject)"와, 그 객체성을 정당화하는 "초월원험(原驗)적 주체(transcendental determining subject)"[23]로 구조적으로 양분될 수밖에 없는 존재론적 딜레마이다.[24] 칸트 주관인식론의 구조는 다름 아닌 객체성의 구성을 통해 주체의 주체성 역시 구성될 수 밖에 없는 구조, 즉, 객체와 주체의 존재론적.인식론적 상호구성 구조이다.[25]

이는 사실상 칸트 자신에게조차 매우 불편하고 곤혹스러울 문제적 사태다. 칸트 역시 그것을 의식하고 있었기에 결국 모든 이성주체에게 "초월적자기통일체의식" (Transcendental Unity of Apperception)이 '이미 있음'을 객체구성적 주체인식작동의 정당성을 궁극적으로 보장해 주는 대전제로 삼아 그로부터 객체 경험의 보편타당성을 연역한다.[26]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트체제에

23) "transcendental"은 일반적으로 "초월적"이라고 번역되나 개념이나 능력의 범위나 의미 경계의 '벗어남'을 주로 뜻하는 한자어 "초월(超越)"은 "경험세계(성)로부터 벗어남"을 의미하는 "transcendent"에 더 적합한 번역으로 보인다. "transcendental"은 그러한 벗어남을 전제하면서 동시에 경험과의 관계성 역시 본질적인 경우에 대해, 즉 그 자신의 존재론적 의미는 경험적 속성으로부터 기인하거나 정당화 될 필요가 없으나, 경험세계의 의미는 그 자신으로부터 기원하는 그런 존재나 상태에 대해 쓰이므로 고심 끝에 "초월원험(原驗)적" 이라 부연해 쓰기로 한다.

24) 서구학계에서는 비교적 최근에야 칸트주체의 존재론적 불확실성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가령 Goldman(2012)은 칸트 비판주체가 객체성 비판에 앞서 정립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칸트에게 주체는 일종의 "지도적 역할(regulative role)"을 하는 개념이라 주장한다.

25) 칸트는 소위 "원초적 근원 주체(a primary subject)"의미는 오로지 상상도식을 적용해(schematism) 경험을 형식으로 제한하는 과정에서만 구현되는 것이라고 못 박는다.(Kant(1965). p. 187; A147/B187) 하지만 도식들 자체는 선험형식(understanding)에 속한 것인 반면 도식작용은 형식과 감각자료를 이어주는 것이기에 딜레마는 고스란히 남는다.

구조화된 상호구성성은 근원주체의 통일의식 역시 구성성의 제약을 끝내 피할 수 없게 하여, 이 해결책은 그 구조적 딜레마를 더욱 드러내기만 할 뿐이었다.

4. 후썰현상학적 이성주체-자기 확신적 理想者(the ideal)

칸트 체계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이러한 상호구성의 존재론적 구조적 딜레마는 결국 후썰현상학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계기가 됐다, 후썰은 정확히 "과학적 지식은 어떻게 정당화 될 수 있는가?"라는 칸트의 질문을 되받고 칸트에게서처럼 후썰에게도 과학성이란 보편.필연성(universality and necessity)을 가리키는 것이었으나 후썰은 이에 더하여 칸트가 이성의 비판력의 댓가로 포기한 존재론적 절대확실성을 과학적 진리성 요건에 포함시킨다. 칸트에게 그것의 유보 또는 포기가 되레 (비판적)합리성의 속성이었던 것과 대조적으로 후썰에게 확실성은 이성성의 진짜 본성으로 "본래적"(*echt,* genuine) 의미의 과학성을 대표한다. 후썰에게 과학적 지식의 정당화는 곧 확실성과 전일성을 본성으로 하는 이성 자체를 존재론적 요구에 의해 정당화하는 문제와 같다. 후썰은 칸트의 주관적 객체형성론을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이론화 작업으로서 칸트철학의 가치를 추종했기에 칸트 구조 하에서 이성주체가 자기의 확실한 자리를 갖지 못하고 존재론적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을 자기모순으로 보고 거의 분노에 가까운 질타를 보낸다.[27]

후썰은 앎의 행위와 의미를 애초부터 경험제약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학이라는 이념(idea of science)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주장한다. 후썰에게 '진정으로' 과학적인 앎의 대상은 플라톤식 이념실재

26) A95-130/B129-69; Kant (1965), pp. 129-175.

27) 이미 초기저작 『논리연구』(Husserl 2001)부터 칸트 비판은 시작과 끝을 이루며, 칸트주체의 문제는 이후 후썰작업의 중심동기로 작용한다. 특히 다음의 주요 글들이 집중적으로 칸트 문제를 현상학적 입장에서 진단한다. Husserl (1974), 9-56; Husserl (1978), 257-266; Husserl (1970), 91-118. 재미있게도 Husserl의 칸트 비판의 동기가 된 모든 객체의 원초적 可知性과 그것의 이념성은 바로 신칸트주의 특히 Natrop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이다. Luft, "Reconstruction and Reduction: Natrop and Husserl on Method and the Question of Subjectivity," in Makkreel & Luft (2010), pp. 59-91를 참조할 것.

(*Eidos*/Idea), 그러한 참성을 보유한 이상체(ideality) 등—가령, 모든 칸트식 범주적 개념이나 원리, 수학적.논리적 언어형식과 대상들, 수(數)자체, 음(音)자체, 절대주관의식 등—과 같이 그 존재형식 자체로 절대 확실한 참성이 담보되는 것이다. 과학적 참성은 이들 대상 자체의 본성이 이상적(ideal)이라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며 따라서 궁극적 가변성과 항상적 부분성을 본래적 속성으로 가지는 칸트식 앎의 대상인 경험자(the real)들은 참된 과학성의 지표가 될 수 없다. 또한 과학명제의 대상과 그 대상들 간의 관계에 애초에 존재하는 그러한 이상(념)성(ideality)[28]은 곧바로 "지성적으로 직관"(intellectual intuition/ideation)된다.[29]

후썰은 더 이상 타당성을 추궁 받지 않아도 되는 최초.궁극의 인식론적 근거를 추적하는 고대로부터 이어지는 서구 형이상학의 동기와 목표를 끝없이 확인하고 정당화하는 것을 과학-이론작업-의 진정한 임무이자 곧 철학작업 그 자체로 보았다. 바로 그것이 현상학 담론에서 절대근원(origin)의 의미와 역할을 절박하게 만든 원동력으로 후기로 갈수록 후썰에게 근원은 단순한 역사적 또는 논리적 시작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이념적 참성을 담보한, 이상성의 발생 출처로서 형이상학적으로 완전히 독립적이고 완결적인 실재(being as such)이자 그 "영역(region)"을 의미하게 됐다. 이렇듯 참된 과학성의 핵심으로서 이상(념)성과 절대정초는 처음부터 끝까지 후썰현상학의 핵심 의미기반이다.

후썰에 따르면 데카르트와 칸트의 "초월원험성"(transcendentality) 개념은 마땅한 개념이었으나, 막상 이성인식주체에게 그와 같은 존재론적 지위를 보장해 주지 못함으로써 실패했다. 이는 실재성의 마지노선을 객체성 자체에 두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선험자 자체도 결국 자기 영역을 못 가지고 경험자의 세계에 착지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데카르트식 코기토의 물체성 문제나 칸트식 선험적 인식주관의 구성성의 문제가 생겨난 것이다. 이것이 후썰 저작의 서두

28) 후썰에게서 ideality는 한편으로는 Idea의 절대영속적 실재성, 그로부터 기인하는 참성을 의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하학이나 논리학의 대상 같은 비경험적 대상으로서의 이상체 객체(ideal object) 또는 그 비경험적 객체성을 직접 지칭한다.

29) 초기작『논리연구』에서 후썰은 그러한 지성직관을 대변하는 개념으로 형식성・개념성 자체를 직관의 대상으로 하는 "범주직관"(categorial intuition) 개념을 제시한다. Husserl (2001b), §45

마다 반복되는 소위 "실제(경험)주의적 오류(realistic error)"이다.[30] 후썰식 의미를 살려 이를 정확히 번역하자면 "실증과학적 실재성 오류"라 할 수 있다. 내용적으로 이 오류는 실제자(實際者, the real)—객체실재성—와 이상자(理想者, the ideal)—주체실재성—의 존재론적 혼동, 또는 혼재(confounding), 즉, 절대정초의 종착지점을 현상적 실제세계의 존재성으로 설정해 버린 오류를 가리킨다. 이 오류는 실제자와 이상자 사이의 존재론적 경계와 위계를 명확히 하지 않음으로써, 후자의 참성이 또다시 정당화의 요구를 받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인식론적 '회귀'의 끈을 끊지 못하게 한다.

여기서 후썰이 정리하는 실제성(reality)의 두 요소는 보어가 EPR논문[31]의 문제제기에 대응하며 고전적 실재성기준이라 반복적으로 규정하는 바로 그 시공간성과 인과성이다. 그렇지만 그 의미해석의 차원은 전혀 다르다. 보어는 실제성을 합리적으로 더 잘 지키기 위해 그 고전적 기준의 엄격성을 포기할 것을 종용하고 있는 반면, 후썰은 절대근원의 자격 조건을 이미 언제나 "근원적으로 그 자체로 거기 있음(*Selbst-da originaliter*, originally being-itself-there)"[32]이 갖는 절대 자기정당성으로 규정하고, 실증과학적 존재성은 시공간적 인과성에 저촉을 받아 아직 파악되지 않은 정당화를 요구 받는 또 다른 존재국면을 항상 남기므로 그러한 근원성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 조건들의 타당성을 아예 유보(bracketing)한다. 왜냐하면 후썰에 따르면 이런 식의 실제주의는 정초의 근간인 이성 자체를 정초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려 이상(념)성을 실제경험성으로 정초 지으려는 전도와 모순을 초래하여 인식작용의 궁극적 정당화라는 형이상학적 임무를 망치기 때문이다.[33]

이와 같이 후썰현상학에서 절대정초란 절대근원의 존재론적 자명성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모양새를 띤다. 여기서 핵심은 근원과 파생간, 이상성과 실제

30) 이 말은 Suzanne Bachelard가 쓴 표현인데, 후썰식 정초개념의 이해를 돕는데 매우 적절하다. Bachlard (1968), p. 157.

31) Einstein, et. al. (1935)

32) "The origin of Geometry," in Husserl (1970), p. 356.

33) 이러한 실제주의적 오류는 *Ideas I*을 통해 "세계"(the world)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거기 인식 밖에 그 자체(in itself)로 존재한다"는 "자연주의 일반명제"(general positing of naturalism)와, 그러한 전제를 지식정당화의 최초근거이자 최후사태로 마감하는 "자연주의적 태도"(natural attitude)로 개념화된다. Husserl (1983), §30.

성간 권력흐름의 위계국면이다. 후썰에게 과학적 정초란 바로 근원인식주체의 이상적 참성(ideal truth)이 구성객체의 실제적 참성(real truth)의 의미정초적 기원이 되는 위계관계를 규범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고, 그 관계가 절대적이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후자의 의미는 오로지 전자에 의해 지워지는 것으로서 발현되고 정당화 된다. 칸트에게 객체가 "실제경험대상"(object of real experience)이었다면 후썰에게 객체는 "의미지움대상"(object of meaning bestowal)이다. 객체성이란 철저히 주체에 의한 "의미지움성"이고, 세계의 존재론적 의의는 '세계가 그러그러하게 존재한다'라는 언명의 "말 뜻"(sense)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34)]

요컨대 후썰은 처음부터 이상자와 실제자의 필연적 존재론적 구분을 상정하고 이성주체를 이상자의 영역에 위치시킴으로써 절대자기정당화의 근거로서의 자명성을 존재론적 구조로 확립하고자 했다. 과학적 객관성, 실제성의 참성은 그것을 참으로 기능하게 만드는 능력의 원천으로서의 이성인식주체인 나의 절대성에 대한 선험적 자각, 즉 절대자기의식으로부터 기인한다. "원험적 초월자기transcendental ego)"는 자기정당화의 조건을 스스로 갖추고 모든 시공간적 인과적 지식대상의 의미기반을 정당화해 주는 준거로서 그러한 자기능력을 항상 확신하며 "이미 언제나 '거기-너머'에 비경험적(irreal)으로 실재하는(always already being there)" 이상자이다. 그 자기확신의 상태가 곧 현상학적 자명함(self-evidence)이다. 바로 이런 경로를 따라 후썰현상학은 유일하게 타당한 "이성과학(science of reason)"을 자칭하며 원험적 초월자로서 주체의 자리와 가치를 절대 정당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체철학을 천명한다.

34) Husserl (1983), <93>. 이 쪽 번호는 영어 번역본에 혼용 표기된 독일어 원본 쪽 번호이다. 후썰이 그래서 모든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의미화 작업—자연과학이든 문학이든 예술이든—내용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핵심은, 모든 그러한 작업들은 정당화가 필요하며 그를 위해 그러한 작업을 의미롭게 하는 주체로서 이성의식을 절대이상영역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확보하는 데 방해받지 않는 이상, 그 어느 정당화 이론보다도 후썰현상학은 자연과학을 옹호한다.

5. 후썰현상학적 주체와 양자역학적 주체의 상관성과 그 함의

후썰의 현상학적 주체이론의 중심동기이자 목표의 한 중요한 축은 실증과학 비판이었다. 후썰은 현대 유럽과학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고 그것을 철학의 위기 그 자체로 보았다.[35] 서양 지성사적으로 때마다 반복되는 이러한 위기설 자체는 별로 새로울 것 없이 현상학적 위기의식 역시 계몽시기를 통해 만연한 전 지식분야에 걸친 위기이론의 창궐과 맥을 같이 한다.[36] 중요한 것은 후썰이 자연과학 위기의 핵심을 다름 아닌 인간성(humanity)의 위기에 직접 대응하는 것으로서의 주체성 위기로 진단하고 그 구체적 내용을 인식주체의 존재론적 자리의 부재로 파악한다는 사실이다.

후썰은 모든 실증자연과학이 이상자 세계의 속성에 反하는 시공간성과 그를 통해 입증되는 인과성을 가리키는 '자연세계의 그 자체적 존재성'을 전제하고 있는데, 자연과학이 이러한 "자연주의적 태도"를 견지하는 한,[37] 스스로의 작업을 정당화 할 수 없다는 자연과학 무능론 테제를 수립한다. 후썰에게 자기정당화의 능력은 철학성 자체를 대변하고, 매 순간 자기정당화의 의무를 저버리지 않는 이론작업 만이 진정한 과학작업이며 인식주체에 대한 절대존재론적 자리매김은 바로 그러한 자기정당화를 완결시키는 형이상학적 기작인데, 근대이후 모든 실증과학-이론과학을 포함해-이 빠져 있는 "실제주의적 오류"는 현대자연과학에 구조적으로 내재한 자기정당화의 의무와 관련한 형이상학적 무능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이제 양자역학적 주체의 철학적 해석, 특히 실재성을 둘러싼 논쟁이 주체이론과 실제주의 오류, 자연과학 무능론 테제등에 비추어 어떻게 현상학적으로 번역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38] 이러한 번역작

35) Husserl (1970).

36) Koselleck (1988)은 18세기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특히 역사철학의 주도하에 "계몽주의적 비판" 개념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이 위기개념이 얼마나 정략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매우 자세하게 파헤친다.

37) 각주 32)를 볼 것.

38) 후썰 全作을 통해『위기』에서 딱 한번 Newton, Einstein과 더불어 Max Planck의 이름이 이와 같은 비판의 맥락에서 거론될 뿐이다. Husserl (1970), p. 4. 하지만 재미있게도 양자역학의 시작으로 알려진 플랑크의 흑체복사 실험이 발표된 시점은 후썰 현상학의 공식 시작으로 기록되는『논

업은 후썰현상학이 양자역학을 자연과학 비판 일반에 편입시켜 양자역학적 인식주체가 실제주의 오류를 그대로 범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과, 반대로 양자역학적 주체는 현상학적 주체이론을 先수용한 상태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양자역학이 정당화될 수 있는 계기이자 유일한 통로는 현상학적 주체이론이라고 해석하는 두 차원에서 모두 진행될 수 있다.

먼저, 현상학적 자연과학 비판 일반에 무게 중심을 두고 보는 입장이다. 양자역학이 객체에 대해 고전역학적 말하기 방식과 스스로를 차별화 시키는 핵심 근거는 인식주체의 의미와 역할이다. 그런데 앞서 보았듯, 새롭게 그 역할이 부상했다는 인식주체는 양자역학적으로 매우 협소하게 특화된 관측주체, 측정의 주체만을 지칭하고 있다. 이 주체는 측정 행위의 당사자이자 그 결과에 기반해 측정대상에 대해 무언가 말을 하는 화자(speaking subject)지만 그 전 과정을 통해 자기자신의 형이상학적 입지를 돌아보는 총체적 회상주체(reflective subject)로서의 존재론적 이념주체(ideal subject)를 가리키지는 않는다. 관측 주체가 "영향을 미치는" 행위 역시 순전히 관측행위를 가리키고, 그 미쳐지는 영향은 객체의 상태를 알 수 있게 해 주는 지표로서 물리량의 측정결과 자체가 다르게 얻어질 수 있는 사태에 상응한다. 그 지난한 실재론 논쟁은, 질료 차원이든, 상태 차원이든, 물리량의 차원이든, 이론 차원이든 간에, 객체의 그 실재성 판단 지점을 수정・재설정하고자 하는 동기와 목표에 입각해 이루어져 왔다.

이 상황을 후썰식으로 번역해 보면 다음과 같다. 양자역학이 대상세계 자체의 엄격한 실재성에 관한 고전역학적 기준을 포기한다 해도 인식행위를 측정행위로 환원.동일시 하는 순간 양자역학적 주체는 경험자 관측주체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인식주체의 개입을 측정 상호작용의 영향으로 구체화 하는 것은 경험성을 최종근거로 삼는 "자연주의적 태도"를 확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관측행위는, 장치를 매개하든, 직접 감각을 통하든, 시공간성과 인과성 하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는 경험자를 어쨌거나 그 자체적 존재로 보고자 하는 태도를 재고하게 하거나 철학적으로 유보하게 만들지 않는다. 다시 말해,

---

리연구』가 출판된 해 (1900)와 같고, 마지막 저작인 『위기』가 출판된 1936년까지 후썰의 주요 저서들은 양자역학사에서 주목할 만하거나 해석논쟁이 치열했던 시기들과 대체로 겹친다.

관측행위와 대상의 상태간의 결정적인 영향관계는 인식주관에 대해서는 그 한계성을 확정짓거나 세계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물자체의 관념에 준하는 대상세계 자체가 '그 자체로 있다'거나, 또는 인식주체(측정행위)로부터 영향을 받는 관계성 자체가 이미 대상세계의 '존재론적 그 자체성을 반영한다'는 판단을 낳는데, 이 모든 경우가 "객관 세계 자체가 바로 그러그러하게 어쨌든 존재한다 "는 자연주의적 일반명제를 확인시켜 줄 뿐이다. 한편, 양자역학적 성과와 작업을 물자체적 대상세계의 실재성 판가름과 상관없이 이론적 정합성과 설명력의 증대 차원에서 정당화 하려는 입장에 대해서도[39] 후썰 현상학은, 합리성의 직접적 대응물인 이론성 자체를 도구화함으로써 결국에는 이성자체를 도구화 하여 진리가 진리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 자체를 상대화, 도구화시키는 실증과학의 자기파멸적인 작태이자 철학적으로 결코 좌시되어서는 안되는 사태라고 주저 없이 규탄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첫 번째 관점의 상학 번역기를 통해 진술하면 양자역학적 실재성 논의구도에서 인식주체는 여전히 자연주의적 판단, 실제주의적 오류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 현상학적 주체이론이 양자역학적 주체를 적극적으로 포섭할 가능성을 보자. 그 가능성은 관측주체의 측정행위가 대상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양자역학적 사태를 절대인식주관이 객체성의 의미를 결정하는 의미결정력이 드러나는 현상학적 사태로 번역할 때 타진된다. 관측행위를 통한 주체의 개입이나 '영향 미침'을 주체의 인식능력의 한계도 주체와의 상호작용이 본질의 일부가 되어버린 객체성의 변용도 아닌, 객체성을 결정하는 인식주체의 절대능력이 발현되어 입증되는 사태의 하나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 때 그 자체가 상태 변경으로 이어지는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주체가 측정이 필연적으로 연루되는 사태에 특정의 객체성의 의미를 입히는 의미결정사건이 된다. 이것으로 객체성의 양자역학적 결정에 대한 하이젠베르크 자신의 해석인 "가능태의 현실태로의 위상전환"[40]이라는 해석 자체도 측정이라는 행위의 매개적 결정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 주체의 경험구성의지, 즉 "원험의지(transcendental

39) 이를 도구주의적 입장이라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 정리는, 장회익 (1990), pp. 134-139의 분류에 따르면 편리할 것 같다.

40) Heisenberg (1958), 54.

will)"가 직접적으로 행사되는 사태로 재해석될 수 있다.

후썰은 칸트의 형식작동에 의거한 객체화 개념을 주체가 직관을 통해 직접 개입하는 현상학적 의미화개념을 골자로 재정립 한다. 후썰에게 인식행위는 곧 인식주체의 의미결정 행위(act of meaning)이며 앞서 보았듯, 이것은 논증하지 않고도 구조적.형식적 참성을 즉각적으로 파악하는 지성직관을 가리킨다. 이 직관행위는 곧 인식주체-절대자아-가 대상의 의미에 "의도적으로 향하는 행위(intentional act)"이며 이 때 인식주체의 행위가 귀결되는 대상은 정확히 말해 바로 이 의도된 의미이다. 즉 현상학적 인식주체는 객체를 바로 그 객체로 의미지우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대상세계를 향하고 있다.[41]

후썰은 아직 의미사태로 파악되고 있지 않은 현상실태들이 언젠가는 논리적 타당성을 가지는 의미로 확정될 가능태(potentiality)의 총체인 가능성의 "장"(field of possibility)에 편재해 있다고 기술한다, 이 가능성의 장 안에, 발생여부와 상관없이 형이상학적 필연성으로 모든 사태는 이미 항상 있다. 후썰은 이 사태가능성의 총체세계를 *Lebenswelt* 즉, "기저경험세계"(life-world)라고 지칭하는데, 이 세계는 근본적으로 불변하는 인식론적, 형이상학적 구조를 가지는 세계로, 인식형식이 가동되기 이전, 객관적 의미가 결정되기 이전(prepredicative, prescientific), 모든 사태들이 의미사태로 전환될 필연적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그 불변하는 필연의 구조로부터 과학.논리 언어로 소통되는 '이' 세계가 정당화되는 그런 세계이다. 이 기저경험세계에서는 이해(understanding)의 대상으로서의 객체가 아닌 아직 인식구조프리즘을 통과하지 않은 개별 원경험들(originary experiences) 만이 존재한다.[42] 그 프리즘을 통과시키는 것이 바로 사태를 논리적으로 결정하고자 의도하는 인식주관의 의미직관(ideation) 행위이고, 인식주관이 사태를 그렇게 보는 순간 아무 경험사태는 비로소 확실한 의미사태 안으로 편입되어 정당화와 참 여부를 논할 수 있는 판단으로 결

41) "의미화 작용"에 대해서는 Husserl (2001a), §§14-23; (2001b), §§37-39를 참조 할 것. 한편 필자는 intentionality를 "지향성"이라 번역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다. 그에 관해서는 지면관계상 다른 기회에 다룰 것을 기약해본다.

42) *Lebenswelt*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는 Husserl (1970), §§32-34를 참조할 것. 한편 *Lebenswelt* 역시 "생활세계"라고 다분히 '오역'되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도 더 이상의 논의는 지면이 허락하지 않는다.

정된다. 이 “前과학적 세계”는 사태들의 입장에서는 과학의 대상으로 결정될 가능성의 장(field)이며 주관의식의 입장에서는 아무사태를 자연과학적 논리사태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능력의 장이자, 이 작업을 통해 그러한 자기능력을 스스로 검증하고 주장하는 자기권력(self-power)의 장이다.

이러한 후썰현상학의 의미화 메카니즘은 흡사 양자역학의 동역학적 상태 결정 메카니즘을 연상시키고 “기저경험세계”는 관측주체가 측정이라는 행위를 아직 수행하지 않았을 때 상태함수 차원에서 주어지는 가능태들의 총합세계를 떠올리게 한다. 아직 측정이라는 직접 개입이 있기 전의 상태 총체가 불확정성으로 대변되다가 관측행위(장치)와의 직접 접촉으로 그 가능태들 중의 한 상태가 현실태로 ‘불현듯’ 결정되고 그 관측 결과가 대상의 동역학적 상태에 대한 판단으로 낙착되듯 인식주체-절대주관의식-의 언어형식화된(thematic/predicative) “의미의도적 이해”(intentional interest)와 “의지(will)”는 흡사 “광선”(ray)이나 “시선”(regard)처럼 아직 논리형식 하에서 확실하게 말해지지 않은 의미외적 사태—의미로 결정되지 않은 부정형 또는 미정형의 경험사태—를 향해 꽂힌다. 그러면 비로소 그 사태는 객관성을 부여받은 사태, 즉 하나의 객관경험이 된다. 이것이 인식의 의미 부여작업을 기술하는 현상학적 장이론(field theory)이다.[43]

만일 이론적 불확정성과 관측을 통한 결정성의 양자역학적 역학 관계가 논리 형식이 개입되기 전 상태에 놓여있는 의미 가능태들의 총장(總場)에서 인식주체가 그들에게 절대적 의미결정력을 행사하는 사태, 인식주체의 형식직관능력과 의지권력(will power)을 입증하는 현상학적 사태로 읽힌다면, 양자역학적 주체는 단순히 관측행위주체를 넘어서 아무사태를 의미사태로 결정짓는 가장 현상학적인 주체로 변역될 수 있다. 관측행위 전.후의 상황변화, 즉, 비결정적 불확정 상태들의 중첩총합에서 한 상태로의 급격한 “붕괴(collapse)”를 cogito의 절대권력이 작동하고 정당화 되는 기작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때, 인식주체성의 핵심은 확률적 예측능력이 아니라, 측정 후 얻어진 결과를

43) 첫 작인 『논리연구』에서부터 “시선”은유는 후썰이 즐겨 쓰는 것이다.(Husserl (2001b), §38) 이 은유는 “장”(field) 은유와 더불어 주체가 의미의도적 의지(intentional will)를 발휘하는 사태를 광학적으로 가시화 하는 기능을 한다.(Husserl (1973), pp. 71-79) 필자는 이 주체장이론에 기반한 후썰의 의식행위 묘사가 “파동함수 붕괴(wave function collapse)” 이론에 입각한 양자역학적 상태결정 서술을 ‘흉내 내고’ 있다는 인상을 내내 지울 수가 없다.

놓고 측정 전 불확정성 원리에 저촉되어 있던 상태성과 연관지어 대상에 대해 '어떠어떠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러한 말을 생산하는 의미결정능력이 된다. 그리고 결정이전·형식이전의 현상학적 가능태들의 총장과 등치된 양자역학적 비결정적 상태들의 총장은 곧 그 안에 이미 cogito의 절대 의미결정력이 내재적으로 구조화 되어 있는 그 자체로 존재론적으로 완결적인 현상학적 절대주체의식의 장이 된다.

정리하자면, 양자역학적 주체의 역할과 의미를 후썰현상학의 주체과학적 관점과 언어로 풀었을 때, 양자역학은 실증과학의 무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던지, 아니면, 양자역학적 불확정성과 측정행위를 통한 영향이라는 사태가 현상학적 기저경험세계의 의미결정구조와 주체의 자기권력구조를 표출하고 있는 예로, 현상학적 관점에 이미 언제나 포섭되어 있고 현상학적 주체이론구조를 입증하는 실증과학이 된다.

6. 양자역학적 주체와 칸트식 주체

칸트는 후썰과는 사뭇 다른 '절대'의 개념을 차용한다. 후썰 절대 개념의 핵심이 한 마디로 타자 정당화의 근원으로서의 최초성과 자기정당화의 근원으로서의 내재성(immanence)이라면 칸트 절대 개념의 핵심은 발생적 필연에 따른 형식의 '절대 먼저성'이라 하겠다. 이것은 조건성의 절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칸트 전체 체계를 위한 구조적 필연성을 대변한다. 가령, 직관의 선험형식이자 선험적 표상(*a priori* representation) 그 자체로서의 시공간은 절대실존체라기 보다 모든 대상경험이 가능하기 위한 절대 조건으로서 인식의 전 과정에 이미 참여해 있는 형식실체(formal being)다.[44]

이러한 형식적 필연으로서의 절대 개념은 칸트 비판형이상학 체계 전체 맥락에서 기능하고 있다. 즉 칸트는 고전역학적 객체결정론이 절대 보장되기 위한 절대조건으로서의 주체성을 말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 결과 앞서 본

44) 실제 뉴튼이 『프린키피아』에서 제기한 절대시공간 역시 이런 형식조건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Newton (1960), pp. 6-9; Toulmin (1959), p. 203)

바대로 그 보편유일자 근원주체를 확신할 수 있는 여지와 정도 역시 객체의 형성과정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만들어 버렸다. 결국 칸트 주체의 최종 핵심은 주체 자신이 그 조건 하에 놓여있다는 제약성을 인식하는 것이 되어 버렸고 바로 그 점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칸트 혁명이 낳은 인식주체는 과거 그 어떤 표상이론에서도 문제되지 않았던 주체의 존재론적 자리 자체의 확실성을 앗아가 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것이 칸트 절대개념에서 불가피 비롯되는 칸트 주체의 일종의 '존재론적 불확정성 구조'이다. 이 때문에 뉴튼식 객체성의 정당화라는 애초 목표의 달성 역시 사실상 불확실해 진다.

그런데 이러한 칸트주체 이론의 함의에 대한 포괄적 형이상학적 이해 없이 여지껏 양자역학적 주체를 둘러싼 철학적 입장들은 어쨌든 칸트식 인식론적 객체구성주의를 칸트철학 전체의 가장 큰 성과이자 의미로 보고 신칸트주의 관점을 결국엔 따르고 있으며 그에 따라 자연과학적 인식구조를 정당화 하고자 한다. 바로 이 기이한 신칸트주의적 '친칸트주의'가 주체 역할을 '경시한' 고전역학과 비교해 양자역학이 절대객체존재론 중심의 형이상학 전통을 극복하는 '개혁성'을 띠고 있다는 해석의 근거가 되어 온 것이다. 하지만 이는 지금까지 자세히 살폈듯 결코 엄밀하지도 설득적이지도 않다. 되레 이렇게 활용되는 칸트식 주체는 인식론적 객체구성주의에 천착한 신칸트주의적 주체일 뿐이며, 칸트식 구성주의가 포괄하고 야기하는 주체구성주의의 존재론적 핵심은 완전히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칸트 주체에 대한 '왜곡'을 보여주고 있다. 끝없이 객체성을 어쨌거나 표상과 실재의 관계라는 '전통적 틀'로 고민하며 기껏해야 신칸트주의 인식론에 안착한 것을 형이상학 전통을 '극복'한 것이라 할 수 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그 반대로 형식적으로 보면 양자역학적 실재론 논쟁은 서구형이상학의 골수문제인 표상의 문제를 다시 건드리며 스스로 고전 형이상학의 문제의식을 대변하고 있다.

칸트 주체철학을 총체적 관점에 바라보고 그 핵심을 상호결정적 조건 하에 있는 존재론적.딜레마적 주체성으로 파악했을 때, 칸트식 주체는 객체의 상태에 미치는 구조화된 영향력이라는 일방성을 의식하고 있는 양자역학적 주체와 오히려 충분히 대치국면에 들 수 있다. 인식론적으로뿐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자가당착적 칸트 주체가 전통 형이상학적 주체의 자기의식이라는 정초적

확실성을 뒤흔들 수밖에 없게 된 그 어쩔 수 없는 구조적 상황을, 불확정성과 상보성이 발휘하는 표상적 위력을 자기 확신하는 양자역학적 측정인식주체, 물리학자 주체는 구조적으로 상당히 불편해 할 수 있다.

7. 결론: 양자역학적 주체의 다른 해석 가능성...?

칸트와 후썰 모두의 출발은 그들 모두의 시대정신을 점유했던 근.현대 자연과학주의의 형이상학적 비판, 재검토, 그 위에서의 확고한 정당화였다. 궁극적으로 주체이론으로 정리되는 그들 철학의 핵심은 형이상학이 현실적으로 어쨌든 막강한 힘을 발휘하던 실증과학과 맺을 수 있는 규범적—결국은 정치적— 관계를 논의하기 위함이었고 이는 특히 후썰의 경우 두드러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스스로 형이상학 전통에서 출현한 '주체'라는 같은 용어와 개념을 물리학 내부로 직접 끌어들인 양자역학은 우리로 하여금 그 자신이 이들 주체철학과 맺을 수 있는 관계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이 논문은 구체적으로 그 관계를 물었으며 그 과정에서 널리 통용 되던 양자역학적 주체 개념이 사실상 매우 일면적인 동역학 작업에 특화된 개념임을 지적하고, 그로 인해 그 개념이 정작 철학적 주체 논의의 장으로 진중하게 옮겨졌을 때는 전통서구형이상학 주체론의 틀을 오히려 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밝히고자 했다. 우리는 특히 양자역학적 주체이론이 현상학적 주체이론과 궤를 같이할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점쳐 보았는데 그 결과 객체론 중심의 양자역학적 주체해석 행보가 현상학적 현대 실증자연과학 비판 일반에 저촉될 가능성과, 현상학적 주체이론이 양자역학적 주체를 오히려 품으려 할 가능성 모두 도출되었으나 같은 신칸트주의 영향 하에 있는 후썰 현상학 주체이론의 비호를 받을 수 있는 후자의 가능성이 훨씬 높게 점쳐졌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후썰 현상학의 명백한 '형이상학적 보수성'이 양자역학주체의 철학적 함의 해석에 전이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칸트식 주체의 존재론적 딜레마를 극복하는 궁극적 과학정당화이론이고자 했던 후썰의 현상학적 주체이론은 사실상 서구철학.신학 전통에서 핵심 기능을 했던 'causa sui' 관념을 역대 누구보다도

가장 적극적으로 부활시키며 오히려 칸트 이전으로 후퇴했고 후썰에게는 이 확고한, 멈추지 않는 "돌아감"(*Rückgang*/return)[45]이 곧 진보 그 자체를 의미했다. 소위 현상학적 혁명성은 '서구 형이상학 전통'의 '혁명적' 고수와 같은 것이다.

반면, 칸트의 불가지적 주체구조는 뉴튼식 과학지식이 절대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인식론적 조건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인식주체의 통일적 절대 자리까지를 불소통적 이분구조 안에 포함시킴으로써, 그 존재론적 불확실성을 극대화 하고 서구철학 전통에서 어쨌든 풀어야 할 난제로 다루어져 왔던 '인식주체성의 절대근원으로의 자리매김'이라는 의제를 거의 형이상학적 영구미제사건화 하는 서구철학사상 전대미문의 '혁명적 결과'를 낳았다. 필자는 이 칸트 주체의 딜레마 구조가 그러한 형이상학적 불안구조를 가지는 서구주체의 특수성을 현상적 실체로 바라보게 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본다. 그러나 인식론적 주체에 대해 그런 식의 존재론적 불확정성을 견디지 못하는 서구사유양식의 독특한 형이상학적・신학적 불안구조는 결국 현상학적 분노를 촉발시키며 역시 전대미문의 후썰식 세계 밖 절대주체와 하이데거식 세계 안 절대존재 다자인(*Dasein*)을 탄생시켰고 그 학문적・정치적 헤게모니는 한 세기를 넘게 막강했다.[46]

양자역학적 주체이론은 구체적으로 인식주체를 측정주체—인간이든 비인간이든지는 구조적으로 별로 중요치 않은—로 한정하고 측정이라는 시공간적 개입행위 자체가 객체의 상태에 대한 앎의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명제를 통해 사실상 논리・과학적 의미를 생산하고 관장하는 이성주체의 능력을 인간성 자체의 보편이상적 본질로 끝없이 긍정하고 강화하는 서구형이상학의 주체정초(subjective foundation) 구도—특히 현상학적 주체정초—에 전혀 변화를 주지 않는다. 만일 어떤 이들이, 양자역학이 어쨌거나 '자연'에 관한 '우리'의

45) 현상학적 기술(technical)용어로서 *Rückgang*은 일차적으로는 모든 객체의미의 타당성과 정당성의 근원인 절대주체의식으로의 회귀(retrogression)를 의미하고(Husserl (1973), pp. 22-25) 더불어 후썰현상학 전체 동기를 아우르는 유럽철학정신과 그 기원인 희랍형이상학정신, 즉 서구고대성으로의 돌아감(return)을 중첩적・동시적으로 의미한다.

46) 이들 현상학적 절대주체성은 철학성과 등가화된 유럽성의 절대 보편성을 직접 가리킨다. 필자는 이러한 현상학적 정치성이 특히 비서구 독자들에게 절대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합리적 이해’의 지평을 더 넓히(혔)고 고전역학에 비해 인식론적 겸손함을 더해 실천적으로 더 유의미하게 진보한 주체역할을 제시하고 있다고 믿는다면, 이야말로 ‘혁명성’과는 거리가 먼 지겹도록 오래 반복되고 지속되어 오는 서구주체이론, 전형적인 현상학적 보편인간론을 측면에서 지원하며 스스로 형이상학의 말단을 자처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양자역학적 주체 해석이, ‘친현상학적’, ‘서구전통 고수적’ 주체의 자리매김에 일조할 가능성에 반하여, 비자발적으로 불편하게 촉발된 칸트의 딜레마적 주체에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진행될 수도 있을까? 관측주체의 개입이 필연적으로 작용해 얻어진 객체의 특정 상태에 대한 양자역학적 의미진술이 객체 뿐 아니라, 주체의 의미 역시 개입 당하고 있는 사태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 측정인식주체가 세계에 대해 자기의 위계적 지위는 명확히 하고 있는 현상학적 주체의 존재론적 자리와 특권은 그대로 유지한 채, 객관세계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앎의 정도에 범위를 주는 정도로만 물러서는 주체가 아니라, 세계의 반응을 통해서만 자기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합리성을 근원성으로 주장하는 습관의 ‘이미 타당함’을 스스로 근거 없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존재는 아닌가라고 성찰하게 하는데 일조할 수도 있을까?

만일 그럴 수 있다면, 양자역학적 주체가 차라리 칸트식 주체의 자기 붕괴적 구조를 ‘실증적으로’ 뒷받침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칸트식 형이상학적 곤혹성 자체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다면, 그를 통해 그러한 서구형이상학적 이성주체성을 진보성의 본질로 선언하고 제인간성의 의미규범으로 삼아온 서구사유습관의 특수구조를 보도록 종용하는 구실을 할 수 있다면, 그래서 현상학적 진보에 제동을 걸어 줄 수 있다면, ‘기존 형이상학 주체 체제에 도전한다’는 말 그대로의 의미로 비로소 ‘혁명적’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

참고문헌

장회익. 1990.『과학과 메타과학』, 서울: 지식산업사.

——— 외. 2016.『양자.정보.생명』, 서울: 한울아카데미.

Bachlard, Suzanne. 1968. *A Study of Husserl's Formal and Transcendental Logic*. Evanston: Northewestern Univ. Pr.

Bohr, Niels. 1928. "The Quantum Postulate and the Recent Development of Atomic Theory." *Nature 121*: 580-90.

————. 1935. "Can Quantum-Mechanical Description of Physical Reality Be Considered Complete?" *Physical Review* 48:696-702.

Einstein, A. Podolsky, B. & Rosen, N. 1935. "Can Quantum-Mechanical Description of Physical Reality be Considered Complete?" *Physical Review 47*: 777-80

Faye, Jan. 2014. "Copenhagen Interpretation of Quantum Mechanics."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https://plato.stanford.edu/entries/qm-copenhagen/#RefWorBoh.

————. 1991. *Niels Bohr: His Heritage and Legacy*.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Faye, J. & Folse, H.J. eds. 1994. *Niels Bohr and Contemporary Philosohy*. 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Feynman, Richard P.1963. *The Feynman Lectures on Physics, vol.III*.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Goldman, Avery. 2012. *Kant and the Subject of Critique on the Regulative Role of the Psychological Idea*. Bloomington: Indiana Univ. Pr.

Heisenberg, Werner. 1958. *Physics and Philosophy : The Revolution in Modern Science*. New York: Harper&Row.

Husserl, Edmund. 1970. *The Crisis of European Sciences and Transcendental Phenomenology*. trans. David Carr, Evanston: Northwestern Univ. Press.

————————. 1973. *Experience and Judgment*. trans. J.S. Churchill & K. Amerkis. Evanston: Northwestern Univ. Press.

————————. 1974. “Kant and the Idea of Transcendental Philosophy” trans. T. E. Klein Jr. & W.E. Pohl. *Southwestern Journal of Philosophy* 5:3, Fall: 9-56.

————————. 1978. *Formal and Transcendental Logic*, trans. Dorion Cairns. The Hague: Martinus Nijhoff.

————————. 1983. *Ideas Pertaining to a Pure Phenomenology and to a Phenomenological Philosophy, First Book: General Introduction to Pure Phenomenology,* trans. F. Kersten, The Hague: Martinus Nijhoff.

————————. 2001a. *Logical Investigations vol. 1*, trans. J.N. Findlay. New York: Humanities Press.

————————. 2001b. *Logical Investigations vol. 2*, trans. J.N. Findlay. New York: Humanities Press.

Kant, Immanuel. 1965. *Critique of Pure Reason*, trans. Norman Kemp Smith. New York: St. Martin’s Press.

Koselleck, Reinhart. 1988. *Critique and Crisis: Enlightenment and the Pathologies of Modern Society*. Cambridge: MIT Press.

Makkreel, R. & Luft, S eds. 2010. *Neo-Kantianism in Contemporary Philosoph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Newton, Issac. 1960. *Sir Issac Netwon’s Mathematical Principles of Natural Philosophy and His System of the World*. trans. A. Motte. Berleley: Univ. of California Pr.

Toulmin, Stephen. 1959. “Criticism in the History of Science: Newton on Absolute Space, Time, and Motion, II.” *The Philosophical Review* 68 (2): 203-227.

Abstract

The Subject of Quantum Mechanics in Comparison with Kant's Critical Subject and Husserl's Phenomenological Subject

- A reinforcement of the Western metaphysical tradition or its problematization? -

Yusuk

Traditionally the role and meaning of the knowing subject has been a salient issue for the Western metaphysics, particularly for the modern one. The notion of the measuring subject, corresponding more or less to the knowing subject in the traditional metaphysical sense, whose measuring act directly interferes in the dynamic state of being of an object, takes up a central place in the philosophical narration of quantum mechanics. Nevertheless the possibility for the metaphysical subject and the quantum mechanical subject to have a certain co-relation has not been thought out in both spheres. This paper addresses and discusses precisely that topic: How is the quantum mechanically playing subject to relate to the metaphysical transcendental subject traditionally set out, specifically to the Kantian subject and the Husserlian subject each? Meanwhile it raises a question as to the so-called 'progressive' character of quantum mechanics whether the quantum mechanical theory of subject 'really' resists the inertia of the Western metaphysical tradition or rather inherits and faithfully upholds it.

Subject Areas: Metaphysics, Phenomenology, Epistemology

Keywords: Theory of Subjectivity, Tradition of Metaphysics, Quantum-mechanical Subject, Kant, Husserl.

투고일: 2017년10월11일 **심사일:** 2017년10월13일~11월19일 **게재확정일:** 2017년11월19일